

Highlight #10: 매체, 시대, 작가의 다양성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마주한 예술



캐나다, 오타와 <Alex Colville>

2015.4.23~9.7_캐나다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차분한 톤의 색감으로 그려낸 풍경, 평범한 일상 속 낯선 일탈. 이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예술가 알렉스 콜빌 작품의 특징입니다. 1920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2013년 생을 마감한 콜빌.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순수하면서도 묵직한 컬러로 표현한 회화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이 열립니다.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두려우리만치 낯선 인상을 드러내는 일상풍경은 콜빌의 전매특허 스타일입니다.

콜빌은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깊게 연관이 돼 있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영화와 문학, 철학, 법과 역사와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전시는 콜빌이 영화 제작자, 작가들, 시각예술가들, 그래픽 소설가들, 작곡가들과 맺어온 관계들을 짚어보고, 더불어 작품을 통해 매치시키고자 한 연결점을 찾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전시는 100여 점의 회화와 프린트, 드로잉을 선보이는데, 여기에는 그가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일 당시 제작한 아주 초창기 작업들도 포함돼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콜빌 작업의 기초가 된 드로잉들은 단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콜빌이 남긴 유작들로 작가 철학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이 전시는 다양한 증서와 자료까지 포함함으로써 한 예술가의 생애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콜빌 작업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이 대규모 회고전은 올해 오타와 캐나다 국립 미술관에서 선보이기 이전, 지난해 가을 토론토 개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To Prince Edward Island>

1965 Acrylic emulsion on masonite 61.9×92.5cm Purchased 1966 National Gallery of Canada(no.14954) © A.C.Fine Art Inc.

미국, 뉴욕 <Diverse Works: Director's Choice 1997-2015>

2015.4.15~8.2_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면? 단연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이 전시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대규모 전시는 그동안 미술관이 수집한 흥미롭고 특별한 성과물인 소장품 중에서 다양한 형식, 영역, 매체를 넘어서는 작품 100여 점을 세심하게 선정해 모은 것으로, 월드 클래스 예술가들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소재로 한 사실적인 조각을 선보이는 키키 스미스와 포토 리얼리즘의 선구자 척 클로스, 여기에 카라 워커의 리노컷 작품 <Keys to the Coop>(1997), 미술관의 영구 상설 설치작품인 주디 시카고의 상징적인 작업 <The Dinner Party>(1974-79), 케힌 데 와일리의 대규모 스케일의 천장화 <Go>(2003), 파블로 피카소의 <Woman in Gray>(1942)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시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예술사의 한 흐름을 훑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사망한 예술가 마이클 리처드의 <Tuskegee Airmen Series>(1997)도 전시돼 의미 깊습니다.

고대 중국의 신화적인 예술부터 최근 제작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다채로운 영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시는 뉴욕뿐 아니라 세계 미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에서 드러나듯 1997년에서 2015년 현재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모은 보석 같은 소장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bbas Al-Musavi <Battle of Karbala>

Late 19th-early 20th century Oil on canvas 182.9×299.7cm Brooklyn Museum: Gift of K. Thomas Elghanayan in honor of Nourollah Elghanayan, 2002.6.

Photo: Christine Gant, Brooklyn Museum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ONA HATOUM>

2015.3.28~6.14_프로아 파운데이션(Fundación Proa)

세계적인 작가 모나 하툼(Mona Hatoum)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최초로 개인전을 가집니다. 1952년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출생한 후 스스로를 레바논인이 아닌 팔레스타인으로 규정하는 하툼은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툼은 각기 다른 이론적인 구조들을 통해 다채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정치, 성 등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신체를 묘사하거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등 자신을 둘러싼 지역들에서 주로 발생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작품 표현에 있어 그는, 진부하고 어쩌면 따분하리만치 평범한 오브제들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친숙한 듯 하지만 결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담은 하툼의 조각과 설치의 주변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관람자 개개인에 따라 감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읽히게 되는 열린 가능성을 지닙니다.

하툼의 작업세계를 살펴볼 때 1990년대는 매우 의미 깊은데, 당시 하툼은 스케일과 작업의 방향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대 규모의 설치 작업으로 작업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조각, 오브제 등이 포함되고, 특히 1980년대 제작된 그의 초창기 퍼포먼스와 비디오 클립들이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끄는 개인전에는 하툼이 이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설치작품도 선보입니다. 자신의 남아메리카 최초 전시인 만큼, 작가가 직접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머물며 작품 설치를 총감독했다는 사실로 이슈를 모았습니다. ■ with ARTINPOST



<S. P. Atelier>

2014 Photographs, objects, pictures, and furnishing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Alexander and Bonin, New York © Photo: Everton Ballardin